

이승기 “한·일 소녀들의 교감, 굉장히 신선해”

〈국민 프로듀서 대표〉

참가자 96명중 12명 한·일 데뷔 글로벌 그룹 목표 2년6개월 활동 PD “최종 멤버 비율 갖지 않을 것”

“소녀들의꿈, 열정, 성장을 지켜봐달라.” 워너원과 아이오아이를 탄생시킨 엠넷 ‘프로듀스101’의 세 번째 시리즈인 ‘프로듀스48’이 15일 오후 11시 첫 방송된다.

‘프로듀스 48’은 ‘프로듀스101’과 일본의 대형 걸그룹 AKB48을 탄생시킨 아키모토 야스시의 제작시스템을 결합한 한일합작 프로젝트. 96명의 참가자 중 살아남은 12명이 한일 양국에서 데뷔한다. 데뷔 후 활동 계약도 2년6개월로 이전 시즌보다 6개월 늘어났다. 제작진은 동남아시아, 미주 시장까지 내다보는 글로벌 그룹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이돌 시장을 뒤흔든 또 한 팀의 괴물신인이 등장할지 관심이 높지만, 일부 일본 참가자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본인 참가자 일부가 1차 경연 때



엠넷 한일합작 글로벌 아이돌 프로젝트 ‘프로듀스 48’ 제작발표회가 11일 서울 논현동의 한 호텔에서 열렸다. 멘토를 맡은 안무가 최영준, 메이제이 리, 배윤정, 국민 프로듀서 대표 이승기, 가수 소유, 이홍기, 치타(앞줄 왼쪽부터) 등이 참가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불참하고 과거 동료에게 불순한 언행을 했거나 욕일승전기 문양의 의상을 입었던 일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잡음이 일었다. 이에 제작진은 참가자들의 노력으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

11일 서울 논현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프로듀스48’ 제작발표회에는 김용범 국장과 연출자 안준영 PD, 국민 프로듀서 대표인 이승기, 보컬·랩·댄스 트레이너인 소유 이홍기 치타배윤정 등이 참석했다.

김용범 국장은 “이번 논란들은 정치적 이념과 전혀 상관없다. 이 부분은 일본 측에서도 입장을 확인해줬다. 예능프로그램에 불과하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대화의 창구가 된다면 최고의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준영 PD도 “한일전으로 봐주지 않길 바란다. 최종 멤버 발탁은 국적 비율을 동일하게 하지 않을 예정이다. 분량도 간절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에게 더 제공될 것

이다. 이들을 통해 꿈, 우정,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논란으로 시끄러웠지만 이전 시즌과 다르다는 점은 호기심을 자극시키기도 한다. 이승기는 “국적이 다른 친구들이 모이다보니 현장의 공기가 낯설면서 긴장감이 넘친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다른 형태로 교감하고 서로에게 에너지를 표출하는 모습이 굉장히 신선하다”고 소개했다. 안 PD는 “일본인 참가자들은 한국의 연습생 시스템 경험이 없어 혼란스러워한다”며 이들의 열정을 높이 샀다.

‘프로듀스 101’ 시즌1의 장근석, 시즌2 보아에 이어 국민 프로듀서 대표로 발탁된 이승기는 “현재 우리나라 음악 산업은 글로벌로 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스타가 등장해야 한다. ‘프로듀스 48’에서 탄생하는 걸그룹이 분명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연예

15

2018년 6월 12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해시태그 킷



나이를 거꾸로 먹는 ‘원조 얼짱’

역시 ‘얼짱’ 출신답다. 연기자 구혜선의 미모가 세월을 비껴가고 있다. 어느덧 30대 중반을 바라보지만 얼굴에서는 나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또렷한 이목구비와 하얀 피부는 미모를 더욱 빛나게 한다. 팬들은 “나만 늙나보다” “원조 얼짱 답다” 등의 반응을 보낸다. 백솔미 기자

#스포츠포스트 #구혜선 #방부제미모 #원조얼짱

내 마음에 작품하나

정해인-‘신경 꺾기의 기술’

“감뺑생활에서 만난 책 사소한 고민 덜어줬죠”



연기자 정해인은 주변으로부터 ‘사서 걱정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스스로도 그 말을 인정하는 정해인은 걱정을 내려놓고 싶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다. 고민이 심각할 때는 “두통에 시달릴” 정도로 예민한 성격이기도 하다.

이런 정해인에게 방법을 알려준 것은 ‘신경 꺾기의 기술’라는 책이다. 올 초 종영한 tvN 드라마 ‘슬기로운 감뺑생활’ 출연 당시 소품팀이 준비한 여러 책 가운데 하나로, 책 읽는 연기를 하다 실제 독서로 이어지게 됐다. 평소 내려놓는 삶을 추구하는 그와 책과의 만남은 운명과도 같았다.

2017년 출간 당시 ‘신경 꺾기의 기술’은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뜻밖의 깨달음을 전해 화제를 모았다. 저자는 무조건 믿고 노력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며 때로는 적게 신경 써야만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2014년 데뷔 후 앞만 보고 달리며 한 달 이상 쉬어본 적 없다는 정해인을 위한 책인 것이다.

그는 “제가 스트레스로 여기는 일들이 책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로 풀이되는 등 그동안 품고 있던 저의 생각과 달라서 흥미롭게 읽었다. 발상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마음 깊숙이 느꼈다”고 말했다.

이달 때부터 걱정과 스트레스를 달고 살았다는 정해인은 사소함으로 시작한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거대해지면 결국 피곤한 사람은 자신임을 잘 알고 있다. 정해인은 “걱정해서 해결될 일은 열심히 노력해 해결하려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될 일이 아니라면 미련하게 붙잡고 있지 말고 빨리 버려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편집 | 김형조·김대건 기자



추자현(왼쪽)·유효광 부부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추자현 응원하는 대중들

10년간 중국서 일군 성과 재조명

연기자 추자현이 출산 뒤 여전히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응원하고 있다. 데뷔 이후 어렵게 일궈온 성과에 대한 재평가이기도 하다.

추자현은 지난해 1월 중국 배우 위샤오광(유효광)과 결혼한 뒤 1일 아들을 얻었다. 하지만 출산 직후 폐상태가 좋지 않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현재 일반병실로 옮겨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매체가 의식불명 상태라고 보도했지만 소속사는 이를 전면 부인했고, 남편 역시 SNS를 통해 이를 확인하며 아내의 곁을 지키고 있다.

이런 상황은 추자현에 대한 진심 어린 응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관련 보도의 댓글에는 추자현의 회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추자현은 1999년 SBS 드라마 ‘카이트’로 데뷔했다. 이후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했지만 큰 빛을 발하지는 못했다. 2006년 영화 ‘사생결단’에서 수위 높은 연기 등 내보인 재능은 그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게 했다.

하지만 그는 직후 홀로 중국으로 날아갔다. 꾸준한 연기 활동에 필요한 발판을 위해서였다. 그야말로 신인으로 돌아갔다. 현지 드라마로 잇따라 주목을 받았고 한류 스타로 크게 성장했다. 그 힘겨운 과정은 2015년 SBS 다큐멘터리 ‘SBS 스페셜’ 등을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

다시 돌아온 그는 남편과 함께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을 통해 국내 시청자의 시선도 모아왔다. 단지 예능프로그램 출연 덕분이 아니라 그가 10여 년 동안 중국에서 일궈온 성과에 대한 국내 대중의 호평이기도 했다. 현재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카메라 앞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시청자가 그를 믿는 까닭이기도 하다.

윤여수 전문가 tadada@donga.com

연예현장.jpg

데뷔 10주년 앨범 발표한 사이니 “장수 비결은 배려”



“설 새 없이 달려왔다. 많은 분들께 축하인사 받으며 10년을 실감한다. 멤버들끼리 잘 싸우고, 함께한 시간이 값지게 남아 있다. 사이니로서, 멤버로서 활발히 활동하겠다.” 그룹 사이니가 데뷔 10주년 소감을 맞아 11일 오후 서울 삼성동 한 호텔에서 6집 ‘더 스토리 오브 라이브’ 발매기념 간담회를 열고 벽찬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아울러 ‘각자 개성이 강하고 서로 다르지만, 그걸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는 시점부터 더욱 친해지게 됐다’며 장수비결을 소개했다. SM엔터테인먼트와 최근 재계약한 사실도 공개했다. 사이니는 데뷔 10주년을 맞아 6집을 3개의 에피소드로 나눠 공개중이다. 5월28일 첫 음반을 시작으로 11일에 이어 25일 순차 공개한다. 뉴시스

전쟁 피해 고발 넘어 반전 메시지…‘히스토리’의 큰 울림

위안부 피해 여성 재판 실화 영화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 흥행 관심

전쟁 피해 고발을 넘어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로 나아가는 영화 ‘히스토리’가 남다른 위업을 갖추고 관객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성노예 피해 여성, 그들이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도록 돕는 이들의 이야기가 과거를 딛고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현재 한반도 상황과 어우러지면서 감성과 이성을 동시에 자극한다.

27일 개봉하는 ‘히스토리’(제작 수필름)는 위안부 피해 여성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벌인 재판 실화를 담았다. 극의 화자이자 관객 마음을 대변하는 주인공 김희애를 중심으로 김해숙과 예수정 그리고 김선영과 이유영 등 주연부터 조연까지 출연진 대부분은 여배우다. 이들은 전쟁이 남긴 고통과 피해의 역사를 생생하게 그려낸다. 최근 몇 년간 비슷한 소재 영화가 이어졌지만 ‘히스토리’의 울림은 그 파장이 깊다.



‘히스토리’

영화는 10명의 피해 여성이 1992년부터 1998년까지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를 오가면서 벌인 23번의 재판을 다룬다. 부산지역 여성 경제인들의 도움으로 용기를 낸 이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고 각각의 경험을 증언한다.

‘히스토리’는 전쟁에서 여성이 겪은 참혹한 피해를 고발하면서도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 과거 상처에 괴로워하는 극중 김해숙이 “더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평화가 필요하다”고 절규하는 모습은 영화를 상징하는 장면이다.

무엇보다 ‘히스토리’는 최근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와 어우러지면서 감동을 배로

높인다. 지난달 남북정상회담과 12일 북미정상회담으로 무르익는 평화의 분위기와도 절묘하게 맞물린다. 상처를 딛고 반전을 넘어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자는 메시지가 영화와 현실을 넘나든다.

민규동 감독은 “영화를 만들어온 지난 20년간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부채의식을 안고 왔다”며 “더는 미룰 수 없어 1940년대 배경의 시나리오 3편을 완성했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작은 승리의 역사인 관부재판을 먼저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실화에 충실한 영화는 극적인 재미도 놓치지 않는다. 출연진 모두 빈틈없는 연기로 극의 완성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린다. 김희애의 활약은 압권이다. 성공한 사업가이자 넘치는 의욕과 카리스마를 지닌 김희애는 누구도 시키지 않은 재판을 6년간 이끌면서 극중 인물들은 물론 관객까지 사로잡는다.

“실존 이야기여서 꼭 하고 싶었다”는 김희애는 “누구의 엄마나 이모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찾으려 고군분투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감사할 마음으로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